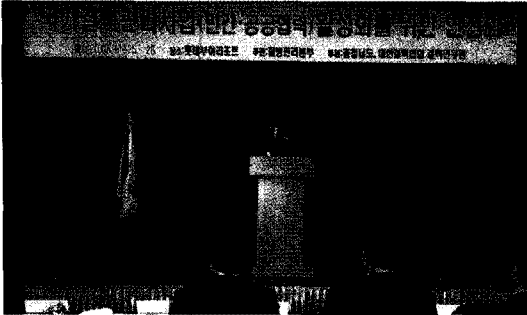




2010년도 크리스마스 선물 증정

우리협회 문영목 회장은 지난 해 12월 14일(화) 청와대를 방문, 영부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고 성금을 전달받았다. 김윤옥 여사는 협회의 결핵퇴치사업에 대한 격려와 함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크리스마스 선물도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물 증정에는 협회 복십자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된 주부 이정희(40) 씨와 대학생 오석호(22) 씨가 참석했다. 사진은 김윤옥 여사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고 있는 문영목 회장. (사진 1)

이밖에 문영목 회장은 12월 13일(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사진 3)하고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 광노현 서울시교육감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사진 4)하고 성금을 전달받았으며, 우리나라 결핵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12월 16일에는 국무총리실을 방문, 김황식 국무총리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고 성금을 전달받았다.(사진 2)



2010 PPM사업 연찬회 개최

결핵퇴치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사업인 PPM사업 연찬회가 지난해 11월 25~26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렸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의 개회사로 막을 연 이번 연찬회에는 이용우 부여군수,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찬회에 앞서 PPM사업 우수기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국가결핵관리 정책에 대한 유병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장의 소개와 함께 결핵예방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연구관의 안내에 이어, 대한결핵협회 김영란 과장이 2011년도 우리협회 취약계층 결핵검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잠깐의 휴식 후 특강과 PPM사업 결핵환자관리 사례발표 등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내용들이 전달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를 맞이하는 PPM사업 연찬회는 이제 관계자들의 소통과 의견교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빈곤취약계층 결핵 정책토론회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강명순 의원과 함께 '빈곤취약계층 결핵실태 파악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결핵 실태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로 김희진 결핵연구위원장의



'우리나라 결핵실태와 현안'에 대한 발표와 유병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장의 '국가 결핵관리 정책'에 대한 내용 소개에 이어, 하나원 전정희 간호사, 최영아 다시서기의원 원장, 최종수 대구결핵요양원 사무국장 등 현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내용 발표와 질문이 이어졌다.

제63차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대한결핵협회(회장 문영목)는 지난해 12월 17일 협회 본부 대강당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했다. 협회는 2011년도에 결핵연구원의 현대화 및 연구기능 강화, stop-tb 운동본부의 협회 편입 및 이에 따른 대국민 홍보캠페인 실시, 고위험군 취약계층 one-stop 결핵검진, 노숙인 폐결핵 집중치료시설 구축 및 운영, 결핵 DOTS 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2011년 시무식 개최

대한결핵협회(회장 문영목)는 2011년 1월 3일 대한결핵협회 본부 및 경인지역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11년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문영목 회장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새해 덕담을 건네는 것으로 시무식을 마쳤다.